

# 시민들이 기획·창작하고 비평하는 미술제

시민자유대학 '아름다운 시민, 미로(美路)를 거닐다'전

전문작가·일반시민 등 33명 참여  
한달간 워크숍... 15일 오픈식 '열린 비평'  
작품 가격 직접 책정하며 경매도 진행  
21일까지 광주 소암미술관



시민자유대학이 진행한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이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15일 광주 소암미술관에서는 색다른 경매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이 직접 작품 가격을 책정하고 왜 그런 가격을 매기게 됐는지 설명도 한다. 어쩌면 작가에게는 가혹한 일일토도 하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갤러리에 걸린 작품들에 대해 누구나 비평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그림을 감상할 때면 "내가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물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정답은 없지만 말이다.

시민자유대학이 주최하는 미술축제 '아름다운 시민, 미로(美路)를 거닐다'가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소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술 축제'를 표방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회 기획과 창작, 그리고 비평까지 모두 시민들의 손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시민자유대학은 철학, 문학, 음악, 건축, 미술, 과학 등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며 광주를 다양한 담론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문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쏟는 단체다.

주최측은 지난 9월부터 행사를 기획했다. 원래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기성 작가들과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격의 없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전한 비평 담론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작가들에는 일정 정도 부담이자, 큰 결실이 필요한 일이었던 터라 아예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미술 축제로 행사를 확장했다.

전시에는 모두 33명이 참여했다. 기성작가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온 아마추어 작가, 난생 처음 그림을 그려본 초심자 등이다. 주최측은 행사를 진행하며 작품 창작에 있어 작가와 초심자의 구별, 비평에 있어 전문 비평가와 일반인의 구별을 없앴다.

처음 미술을 접한 이들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세 차례



경매 시장에 등장할 송유미 작 '잃어버린 시간 II'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았다.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화가로도 활동하며 개인전도 연 동강대 김용근 교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지에 대해 도움을 줬다. 또 현역 작가인 조성숙 전남대 교수, 예술철학을 가르치는 최행준 시민자유대학 교수가 함께하며 주제 잡기, 발상하기 등과 함께 수채화, 드로

잉 등 기초 조형을 경험해보고 개별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심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에 관심을 가져왔던 참가자들은 개별 작업을 진행한 후 온라인에서 의견을 공유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기성 작가로는 서기문, 조성숙, 김성대, 김수옥, 김경록, 김동하, 김성민, 김용근, 이정기씨 등이 출품했으며 박구용 시민대학 교수도 참여했다.

15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오픈식은 음악공연과 함께 '열린 비평'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작가와 평단이 서로 겨루며 함께 성장해야 예술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서 준비한 기획이다. 미술 비평을 전공한 전문가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위계 없이 한마디씩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외 송유미 작가의 추상작품 '잃어버린 시간 II'를 놓고 경매를 진행한다. 갤러리를 찾은 이들이 직접 작품 가격을 매기고 '나는 왜 이 작품에 이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다.

"미술작품을 통해 전공자와 일반 시민들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한 기획입니다. 시민들이 같이 창작해보고, 비평도 해보는 '열린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작가들은 기존 평단에만 집착했던 데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고, 미술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시민들은 창작과 비평에도 참여해 보면서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시민자유대학 최송아씨는 "경매는 미술작품 시장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방안을 실험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오픈 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 미술학과 조소 전공 졸업작품전

15일~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황정수 작 '짓눌린 꽃'

새내기 조각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 미술학과 조소 전공 졸업작품전이 15일부터 2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기존 작가들에 비해 원숙미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개성과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작품들은 흥미롭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졸업전에는 나영은·박정원·서보경·신승학·이진우·임준형·전영준·주아람·허윤·황정수씨 등이 모두 27점을 선보인다.

중이 파쇄기를 활용한 '나쁜 기억을 지

워주는 기계', 교복과 책상 등을 소재 삼아 현대 사회를 풍자한 '짓눌린 꿈'을 비롯해 브론즈, 나무 등 정통 소재는 물론이고 번기 세제, 휴지걸이, 저울 등 생활용품들을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작품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인상적이다.

최규철·김대길 교수가 지도를 맡았으며 박정용·박형오·이형영·장성훈 작가 등 4학년 지도 강사들도 전조 출품했다. 지도를 맡았다. 오프닝 행사 15일 오후 6시.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극단 Y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 송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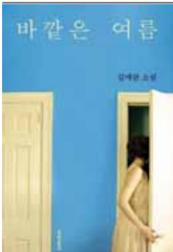
14일~17일 공동예술극장

극단 Y가 2017년 송년특집공연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연극 '늙은 코미디언 이야기'는 오는 14일·15일 오후 8시30분, 16일 오후 3시, 6시, 17일 오후 6시, 예술의 거리에 있는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에는 과거 악극단에서 코미디를 하던 허동팔과 천명태가 등장한다. 어지간해서는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허동팔. 그는 매일 같이 무대복을 다뤄질하며 고뇌와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 천명태는 젊은 시절을 주색잡기로 보내고, 지금

은 잃어버린 혈육인 딸을 찾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 두 노인은 각기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며 살고 있다. 밤무대에서 춤을 추며 생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어느 날 해고를 당하고 그들의 집마저 도시 계획에 의해 철거당할 위기에 놓이는 데...

박규상이 연출을 맡았으며 이현기, 정순기, 윤보라, 송정우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70-4250-5997, 010-2684-599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소설가 50명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소설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이 기획한 '2017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사진)이 선정됐다.

낭만서점은 소설가 50명에게 2017년 출간된 소설 중 가장 재미있게 읽은 소설 또는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소설을 한 권에서 다섯

권까지 추천 받았다.

총 11명의 추천을 받아 1위의 영광을 차지한 소설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은 제48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위는 총 8명의 추천을 받은 김혜진 작가의 '말에 대하여'가 차지했다. 소설은 무연고 노인

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엄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혐오와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이야기한다. 3위는 조해진 작가의 '빛의 호위',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로런 그로프의 '운명과 분노'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